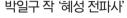
우리 동네 추억을 소환합니다







정선휘 작 '하교길'

예술공간 집 18일까지 '광주의 추억' 전

9일까지 정선휘전, 장동·동명동 등 화폭에 박일구전 10~18일, 골목길·기찻길 앵글에

> 동네 멋쟁이의 단골 양장점, 온갖 전자제품을 수 리해주던 전파사, 가족 사진을 찍어주던 사진관, 그리고 철길 따라 학교에 가는 아이들이 모습…. 이름은 다를 지 모르지만 동네마다 한두곳 쯤 있던 가게들이자 익숙한 풍경들이다.

> 정겨운 광주의 옛 모습을 그림과 사진으로 만날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리고 있다. 참신한 기획전으로 관심을 끌고 있는 예술공간 집이 '광주의 추억'이 라는 큰 주제 아래 1부와 2부로 나줘 진행중인 이 번 전시는 서양화가 정선휘 작가와 박일구 사진작 가를 초청해 마련했다.

> 이번 전시는 동구 전남여고 앞에 자리한 한옥갤 러리 예술공간 집의 장소적 특수성에서 출발했다. 충장로, 금남로, 대인시장 등이 자리한 광주 동구 는 광주의 원도심으로 활기가 넘쳤지만 재개발 등 으로 많은 사람들이 빠져 나가면서 도심의 풍경도 급속히 변화했다. 하지만 아직도 구석진 곳들에는 옛 모습이 조금은 남아있고 그런 원도심의 모습을

오래전부터 화폭과 앵글에 담아온 두 작가의 작품 을 다시 소환해 소박한 아름다움을 간직했던, 지금 은 잃어버린 광주의 이야기를 되살리는 기획이다. 또 이번 전시는 광주의 대표적 행사인 충장축제 기 간에 열려 의미를 더한다.

정선휘 작가는 장동과 동명동에 각각 작업실과 집이 있었고, 박일구 작가 역시 동명동에 작업실을 두고 활동하던 때라 숱하게 그 길을 오고 가며 동구 구석구석을 담은 작품들을 많이 작업했었다. 이번 전시는 지역의 예술적 자산을 재순환 시키는 역할 을 하겠다는 예술공간 집의 기획 의도에 따라 지역 중견 작가들의 '옛 작품'을 다시 만나는 기회이기

지난 1일 시작해 9일까지 계속되는 1부 정선휘 작가의 '축적된 시간, 남겨진 풍경'전에서는 작가 가 1999년부터 2001년 작업한 작품들을 만날 수 있다. 지금은 미디어 아트 작업을 주로 하고 있는 정작가의 페인팅 작업을 오랜만에 다시 볼 수 있어 반가운 전시로 따뜻함과 아련함이 함께 담겨 있는 작품들이 선보인다.

그의 화폭에선 장동, 동명동, 계림동, 농장다리 등지의 모습을 볼 수 있다. 폐선부지에 피어난 잡 초와 작은 꽃들, 새벽녘 도심을 가로지르는 마지막 열차, 비오는 날 우산을 쓰고 바삐 움직이는 사람

들이 등장하며 그가 즐겨 사용하는 푸르스름한 색 조와 회색빛 화면은 힘들었지만 따뜻했던 그 시절 의 온기를 느끼게 해준다.

2부 전시인 박일구 작가의 'The Scene, 사라지 고도 남겨진'은 10일부터 18일까지 계속된다. 모 두 미발표작인 전시작들은 1992년부터 1995년 사 이에 찍은 사진들로 박 작가가 본격적인 작품활동 을 시작하기 이전 사진들이다. 사학을 전공한 박 작가는 다시 사진학과를 다니고 중앙대학교 대학 원 사진과를 졸업했다.

전시작은 대학 졸업 후 처음 카메라를 집어든 때 촬영한 것으로 지금은 푸른길이 된 기찻길과 기찻 길 인근의 계림동 산수동, 농장다리, 지산동, 학동 등 기찻길을 따라 연결된 작은 골목길과 남광주역 에서 효천역까지 이어지던 길들이 그대로 사진에 담겼다.

작지만 없는 게 없었던 산수동 구멍가게, 동네마 다 자리했던 체내리는 집, 굴다리 부동산, 남광주 역 대합실에서 기차를 기다리는 다양한 표정의 사 람들 등 그의 앵글에 포착된 풍경과 인물들은 아련 한 향수를 느끼게 한다.

관람시간 오전 11시~오후 7시. 문의 062-233-3342, 010-4327-7576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가수 이동원과 함께하는 스크린의 향수

CNS 윈드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오늘 광주문예회관

CNS 윈드오케스트라(단장 한성모)가 3일 오후 7시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에서 11회 정기연주

'가수 이동원과 함께하는 스크린의 향수'를 주제

로 열리는 이번 연주회에서는 시노래 가수 이동원 〈사진〉이 출연한다. 이동원은 CNS 윈드오케스트 라의 연주와 함께 '향수', '가을편지' 등을 들려줄

인기 영화 주제곡들을 연주하며 가을 밤의 낭만을 선사한다. 추선호 광주시립교향악단 상임단원이 지휘를 맡고 테너 유정석이 협연한다.

CNS윈드오케스트라는 광주·전남지역 전문연주 자와 동호인 연주자 50명으로 구성됐다. 지난 2008년 창단한 이래 매년 정기연주회를 열고 있으 며 4년 전부터는 제주국제관악제에 초청 받아 무대 에 오르고 있다. 전석 무료 초대. 문의 010-5481-

'임방울국악제' 수상자 대만 자매도시 공연

4~10일 타이난시

올해 '임방울국악 제'수상자들이 오 는 4일부터 7일 동 안대만타이난시에 서 국악의 진수를 선보인다.

'26회임방울국악 제'수상자 공연단 은 광주시의 자매도 시인 타이난시의 초 청을 받아 '2018 남 영국제민속예술제' 에서 전통국악 공연



'부채춤' 공연 모습.

공연단은 올해 대통령상인 판소리 명창부 대상을 받은 정상희씨와 각 부문 최우수상 등 30명으로 꾸려졌다. 이들은 6일 신영구에서 열리는 개막식 축 하공연을 시작으로 5차례에 걸쳐 부채춤, 소고춤, 남도민요, 풍물판굿 등을 타이난시 거리 곳곳에서 선보인다. 이번 축제에는 필리핀, 인도네시아, 일 본, 폴란드, 러시아, 체코 등 20여 개 국가의 예술단체가 참가해 각 나라의 전 통문화로 교류를 다질 예정이다.

사단법인 임방울국악진흥회는 지난 2010년부터 임방울국악제 수상자들과 함께 국내외 공연을 꾸준히 열며 예향광주를 알리고 있다. /백희준 기자 bhj@

세계 여성박물관을 가다 여성, 체육의 새 지평을 열다

전남여성문화박물관・국립여성사전시관 12일까지 교류전



1986년 서울아시안게임에서 육 상 3관왕을 차지한 임춘애 선수.

전남여성문화박물관이 국립여성사전시관과 2 개의 교류전 '세계 여성박물관을 가다'와 '여성, 체육의 새 지평을 열다'를 오는 12일까지 진행한

전시는 박물관이 있는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전 남여성플라자 2층에서 열린다. '세계 여성박물관 을 가다'에서는 지난 2002년 우리나라에서 처음 문을 연 국립여성사전시관과 덴마크 여성박물관 (덴마크), 벨몬트·폴 전국여성평등기념관(미 국), 하노이 박물관(베트남), 전쟁과 평화자료관 (일본), 걸뮤지엄(사이버박물관), 부녀아동박물 관(중국) 등 전 세계 여성박물관을 사진과 함께

'여성, 체육의 새 지평을 열다' 전에서는 한국 여 성체육의 발차취를 돌아본다. 이번 전시에서는 한 국 여성 체육사를 '전통사회 여성의 운동, 민속놀 이', '여성체육, 근대여학교에서 시작되다', '여성 체육 발전의 기초를 닦다', '세계적 여성스포츠 스 타의 등장과 여성지도자', '여성체육의 새 지평' 등 5개 영역으로 나눠 풀어냈다.

여성의 신체 활동이 장려되지 않았던 전통사회 부터 평창동계올림픽과 2018 아시안게임에서의 여 성 활약상까지 여성체육사를 전반적으로 다뤘다.

한국인 여성 최초로 1948년 런던올림픽에 출

전한 원반 던지기 박봉식 선수와 밴쿠버 동계올림 픽에서 한국 피겨 최초로 금메달을 딴 김연아 선수 등 여성체육사를 빛낸 인

물을 전시물(배너) 20점에 담았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단열복합시트 시공

2.단열베이스카펫 시공

예정이다. 또 라라랜드, 캐리비언의 해적, 록키 등 6679.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 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02) 765-994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내진보강

4.시공후



공식블로그 blog.naver.com/waterproof01